

[연합회 동정]

[‘최신 생물학적 하·폐수 처리기술 및 신운영 관리 기법’ 교육 실시]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회장 이상호)는 한국산업기술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25일에서 27일까지 3일간 한국산업기술협회 연수원(구 로동 소재)에서 '오·폐수 처리 신기술 및 운영기법(사례별 질의응답)'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주)드림바이오스 대표이사 광무영 박사가 사상체(Filament)에 의한 별킹, Bulking 원인분석과 대책(별킹 제어대책),

(주)신한기술단 환경/상하수도부 팀장 전진 기술사가 수질 관리 설비 운영관리, 이호환경건설링 대표 이문호 소장이 사상체에 의한 거품, 스크럼과 그 제어대책

비사상미생물에 의한 활성슬러지 이상현상을, (주)동일환경기술 대표이사 수질관리기술사 오제식 기술사가 활성슬러지 미생물, 환경조건과 활성슬러지 미생물의 증식을, 하이트맥주(주) 전주공장 환경팀 박전수

팀장이 폐수처리 성공사례 발표를, 삼양사 중앙연구소 환경파트 임성린 책임연구원이 활성 슬러지 공법의 원리 및 실무적용을 강의했다.

다음교육은 '대기/폐기물/소각/수질관리(TMS 설비) 및 운영관리 기법 환경설비운영관리(Operation & Maintenance)전문가 양성 및 보수과정' 교육 과정명으로 한국산업기술협회 연수원에서 11월 13일에서 11월 15일까지 실시한다.

[오·폐수 처리 신기술 및 운영기법(사례별 질의응답) 교육 실시]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회장 이상호)는 한국산업기술협회와 공동으로 지난 10월 11일에서 13일까지 3일간 한국산업기술협회 연수원(구 로동 소재)에서 '오·폐수 처리 신기술 및 운영기법(사례별 질의응답)'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주)다비존스 회

장/수질관리기술사 문승수 기술사가 물의 물리 화학적 특성, 물리적 처리의 원리 및 실무 활용기술을, 대양바이오테크(주) 박중운 대표이사가 질소·인 고도처리시설의 운영관리기술을, 한국산업기술협회 연수부 수석교수/수질관리기술사 김용한 교수가 화학적 처리의 원리 및 실무활용

기술, 물리 화학적 처리 신기술을, (주)신한기술단 환경/상하수도부 팀장 전진 기술사가 생물학적 폐수처리 원리 및 메카니즘, 생물학적 폐수처리 프로세스를, 청림환경기술연구소 이성호 대표이사가 최신 생물학적 처리 운영 관리 기법과 현장 사례 발표를 강의했다.

[‘제2회 환경기술인의 날’ 성황리에 개최]

'제2회 환경기술인의 날'기념식이 지난 10월 10일 인천 라마다 송도호

텔 2층 르느와르홀에서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월간 '환경기술인' 공

동주최로 약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국정감사 관 계로 참석하지 못한 이치범 환경부 장관을 대리해 손희만 한강유역환경청장,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신응배 환경기술인의 날 제정·추진위원장 등 환경단체장과 각계 각층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환경기술인들을 격려하고 사기 진작과 사명감을 고취시켜주는 등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 환경기술인들은 한자리에 모여 신기술 정보를 교환하고 현안 환경정책 및 향후 추진방향등을 토론하는 등 상호 결속을 다지는 기회로 삼았다.

이날 행사는 환경부, 인천광역시, 인천환경기술인협의회,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연합회, 광운대학교환경대학원, 환경영향평가협회, 한국환

경학술단체연합회, 환경관리기술사회, 대한환경공학회, 전국대학환경관련학과교수협의회, 환경관리연구소, (사)한국자원재생활용연합회와 50개 참여단체 후원으로 열렸다.

이날 기념식은 환경기술인 대표로 (주)어드밴트 김점원 차장의 환경기술인이 실천해야 할 '환경기술인 헌장' 낭독을 시작으로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이용운 초대회장의 환경기술인의 날 제정 경과보고, 대한민국환경기술장 심사위원회 박창근 위원장의 대한민국환경기술장 경과보고 및 시장,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이상호 회장의 연합회장상 수여 및 기념사, 한강유역환경청 손희만 청장의 환경부장관상 전달 및 축사 대독, 신응배 환경기술인의 날 제정·추진위원장의 격려사,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

의 인천광역시장상 수여 및 환영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 이상호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두 번째 맞이하는 환경기술인의 날을 계기로 무엇보다 우리 환경기술인이 도약·발전하는 해로 승화·발전시키는 데 힘과 중지를 모아야 하겠다"고 밝히고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기술인 여러분의 끊임없는 탐구정신과 창의력으로 새로운 환경기술 개발과 그 실용화에 앞장서서 미래 세대를 육성·발전시키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손희만 청장은 "21세기는 환경의 시대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발전은 요원한 만큼 전문적인 식견과 열정을 갖고 있는 환경기술인들이 정부 정책을 잘 반영하고 개선시키는 데 만전을 기해 달라"며 이치범 환경부 장관의 축사를 대독했다.

안상수 시장도 환영사를 통해 "환경보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은 그 성과가 미미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경제와 환경이 어루러져 성장동력과 접점을 이룰 수 있도록 모두가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식전행사에는 인천광역시 환경보전과 김동인 과장이 '인천시 환경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다. 이날 수여된 상은 대한민국환경기술장, 환경부 장관상, 인천광역시



장상,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장상 등 모두 4개 부문, 23개 업체에 시상이었다.

한편 이날 부대행사로 열린 환경정책 설명회에는 환경부 대기관리과 이윤택 서기관이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및 정책방향'을 설명했고, 환경관리공단 측정관리처 정동희 차장이 '수질TMS 구축 및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 (주)성신엔지니어링 박태규 이

사가 '중력식 섬유여과기를 이용한 부유물질 제거기술'을 주제로 발표했고, 보성환경이엔텍(주) 박상호 대표이사가 '악취처리시설 신기술(축매산화 탈취시설 : CND-10)'에 대해 발표해 신기술 개발 업체와 수요자와의 이해도를 높였다. 이어 대한민국 환경기술장 금강대장 수상자인 앵겔하드아시아퍼시픽한국(주) 생산·환경팀 이경수 팀장이 '환경오염방지 우수 성공사례'를 발표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환경기술인의 날'은 환경오염물질 10% 저감운동과 기술력(자기개발) 10% 향상을 위한 이미지를 부여하여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이에 대한 평가 및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매년 10월 10일날 기념식을 갖기로 지난 2005년 2월에 제정해 그해 10월 10일 제1회 기념식에 이어 이번에 2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제18회 대한민국환경기술장 시상식' 개최]

대한민국환경기술장 시상식에서 앵겔하드아시아퍼시픽한국(주) 이경수 생산·환경팀장이 최고의 상인 금강대장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10월 10일 인천라마다 송도 호텔 2층 르느와르홀에서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와 월간 '환경기술인'이 공동 주최한 '제2회 환경기술인의 날 기념식'과 함께 개최된 제18회 대한민국환경기술장 시상식에는 환경단체장과 각계 인사 및 환경기술인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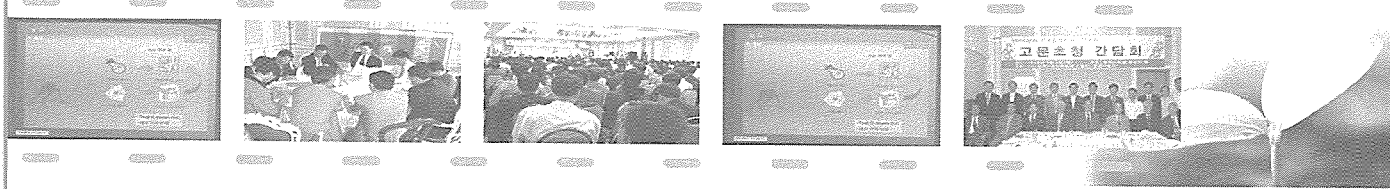
대한민국환경기술장은 환경일선에서 깨끗한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환경기술인들의 공로를 기리고, 권익과 지위향상을 위해 1989년



에 (사)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에서 제정한 상으로 매년 환경기술인의 날에 즈음하여 1회씩 시상되고 있는 국내 유일의 환경기술인 상이며, 올

해로 18회가 되는 해이다.

이 시장은 최상위 등급인 금강대장 1명, 금강 1명을 비롯해 은장, 동장, 창의장, 봉사장, 노력장 등 각 2



명석에게 상이 주어진다. 그러나 상의 권위를 위해 당해 연도 해당자가 없을 시에는 축소 수여되는 경우도 있다.

이날 시상식에는 대한민국환경기술장 심사위원인 박창근 위원의 대한민국환경기술장 경과보고 및 심사평이 있는 후, 신용배 위원과 함께 각 부분별 시상식을 가졌다.

박 위원은 경과보고에서 “각 지역협의회에서 1차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서류이니 만큼 개인별 공적이 대동소이하여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심사위원들의 심사평이었으며, 입상하지 못한 기술인들도 공적이 우수했지만 모두 수상자로 선정하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세심한 배려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또 박 위원장은 “비록 이 자리에는 없지만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환경기술인이 많다”고 말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는 더욱더 격려하고 노고를 치하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올해 최고 영예의 금강대장에는 인천환경기술인협의회 소속 앵겔하드아시아퍼시픽한국(주) 이경수 생산·환경팀장이 차지했으며, 금장에는 전북환경기술인협의회 소속 지엠대우오토엔테크놀러지(주) 군산공장 노형곤 환경팀장이 선정됐다.

또 은장에는 경기협의회 소속 (주)농심 안성공장 이동백 환경공무팀 과장이 수상했으며, 광주전남협의회 소속 한화석유화학(주) 여수공장 박준규 대리과 경남협의회 소속 창원특수강(주) 이인재 환경에너지팀장, 울산협의회 소속 한화석유화학(주) 울산2공장 권삼철 대리가 공동으로 동장을 수상했다.

한편 (주)해성환경 안교원 대표이사가 창의장, 동일화학(주) 이선균 대표이사가 노력장을 수상하는 영광을 얻었다.

이들 수상자들에게는 공히 기장과 메달 및 부상이 수여됐다.

특히, 금강대장에게는 무료해의산업사찰권이 제공됐으며, 금장은 50

만원 상당의 부상, 은장은 40만원 상당의 부상, 동장은 30만원 상당의 부상, 창의장과 노력장은 20만원 상당의 부상 교환권이 주어졌다.

금년 심사에는 19개 지역협의회에서 1차 심사를 거쳐 최종 1명만 선발되어 연합회에 추천·접수된 공적조사서 및 증빙서류를 토대로 심사채점기준표에 입각해 지난 9월 14일 제주도 오리엔탈 호텔에서 연합회 임원 및 지역협의회장들이 참석해 2차 심사를 마친 후, 9월 23일 대한민국환경기술장 심사위원장이신 권숙표 박사님의 자택에서 심사위원들이 참석해 최종 심의를 거쳐 3차 심사를 마친 후에 해당 등급의 수상자를 조정하여 금강대장 1명, 금장 1명, 은장 1명, 동장 3명, 창의장, 노력장 각 1명씩 총 8명을 선정했다.

이날 시상식에 이어 금강대장 수상자인 앵겔하드아시아퍼시픽한국(주) 이경수 생산·환경팀장이 환경오염방지 우수성공사례 발표를 실시했다. ◀

월간지
구독 문의

- TEL : (02)852-2291 (代)
- E-Mail: keef@keef.or.kr (代)